



# FT, 2015년 세계 주요 이슈 전망 발표

이아름 연구원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경제 관련 주요 이슈들을 분석한 ‘2015년 세계 전망’<sup>1)</sup>을 발표함.

- FT 전망에 따르면 2015년에 국제유가는 전 세계적인 원유 과잉공급과 수요부족으로 하락세를 지속할 것임.
- 또한,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경제성장률은 7%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 유럽중앙은행(ECB)은 전면적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임.
- 그 외 추가적으로 5월 영국 거국내각 구성, 러시아 영토 확장 자제, 미국 차기 대선 관련 힐러리 경쟁자 미출현, 런던 부동산 약세, 인도 고성장 회복, 에볼라 사태 진정, 비트코인 유지, ‘입는 기기(wearables)’ 대중화 지체 등이 예상됨.

■ FT는 2014년 50% 가량 급락한<sup>2)</sup> 국제유가가 2015년에도 공급과잉과 수요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배럴당 50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함.

- 공급 측면에서 셰일오일 업계는 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증가시킬 것이며, 석유수출국기구(OPEC)도 원유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감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제유가 하락 압력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임.
-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2015년에도 에너지 수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FT는 국제유가가 2015년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지속되어 50달러를 하회하였다가 하반기에 상승세로 전환되어 연말에 연초 가격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1) FT Predictions: the world in 2015(2014. 12. 30).

2) 국제유가는 2014년 6월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였지만 2015년 1월 기준 5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음.

■ FT는 2015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단행, 기준금리 인상 등의 새로운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함.

- 유럽중앙은행(ECB)은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여 국채를 매입하는 등 전면적인 양적완화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11월 유로 지역 물가상승률은 0.3%로 목표치인 2%를 하회함에 따라 마리오 درا기(Mario Draghi) ECB 총재는 1조 유로(약 1,326조 5,100억 원)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 미국 Fed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며, 영란은행(BOE)도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긴축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른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되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015년 하반기 들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됨.

■ 2015년 중국 경제는 부채 증가, 고정자산 투자둔화, 부동산 시장 및 제조업 분야 악화 등으로 인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4년 목표치인 7.5%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15년에도 경제성장 둔화로 7%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저물가로 인해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추가적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 추가적으로 FT는 인도 경제가 성장세를 회복하고, 영국은 5월 거국내각(National Government)<sup>3)</sup>을 구성하며, 러시아는 추가적인 영토 병합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 2015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9%를 기록하고, 영국은 5월 총선 이후 한 정당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여 1930년대에 존재하였던 거국내각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
- 지정학적 위험 관련 서방 경제제재 강화와 유가 약세에 따른 경제위기 영향으로 러시아는 추가적인 영토 병합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FT 등)

3)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내각을 일컫음.